

문화연대소식

100-043 서울시 중구 남산동 3가 34-5 남산빌딩 215호 전화 02.773.7707 전송 02.777.0636

문화연대가

회원을 모집합니다

▷ 자격요건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스스로 문화시민이라 생각하시는 분
2. 문화사회를 원하시는 분

▷ 회원이 되는 절차

1. 02.773.7707로 전화를 건다
2. 02.777.0636으로 팩스 보낸다
3. acc21@chollian.net으로 E-mail을 보낸다
4. 문화연대 사무실로 직접 방문을 한다
5. 월회비 3,000원, 연회비 36,000원을 은행에서 입금한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보내주신 회비는 문화연대에서 소중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자 없는 회비, 광활한 통장에 가입원서도 없이 이름만 달랑, 입금만 이뤄지는 현실에 문화연대는 가슴 아파합니다. 아래의 분들께서는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름을 밝혀 주실 분들

9. 2. 박재경(국민)
9. 22. 함진균(국민)
10. 5. 김경숙(국민)
10. 11. 김영진(국민)
10. 18. 김인규(농협)
10. 22. 박용빈(농협)
10. 26. 한효숙(국민)
11. 6. 하관식(한빛)
11. 12. 최기성(국민)

문화연대가 여러분께 제출합니다!!!

이력서

이름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약칭 문화연대)				
생년월일	'99.9.18	성별	문화N.G.O	주민등록번호	201-82-60121
주소	서울시 중구 남산동 3가 34-5 남산빌딩 215호실				
호주와의 관계	문화를 사랑하는 시민의 자	연락처	02.773.7707		

학력 및 경력 사항

1999년	6월	예술가/지식인/시민운동가 중심의 2차에 걸친 준비모임 가칭'문화개혁시민연대'
	6월 25일	가칭 '문화개혁시민연대(이하 문화연대)' 실무준비모임
	7월 2일	문화연대 준비위원회 1차 모임 : 성격/조직 논의
	7월 8일	'한미투자협정과 문화주권' 토론회 준비위원회 2차 모임 : 조직기구/재정안 논의
	7월 24일	문화연대 준비 워크샵
	8월 2일	문화연대 창립준비위원회 1차회의
	8월 19일	창립준비위원회 2차회의
	8월 28일	창립준비위원회 3차 회의
	9월 11일	발기인대회-명칭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문화연대)'결정
	9월 18일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문화연대)' 창립대회 편집위원회 - 문화연대 문화신문 창간준비 1호 발행
	10월	문화개혁감시센터 국회 국정감사 의정활동, ASEM 민간단체 포럼, 밀레니엄 라운드 민중행동 등과 연대사업 추진 문화유산위원회 경북공내 건청궁지역 개방에 관한 질의서 발송 - 경찰청장/청와대 경호실장/문화재청장 사무처 사업자 등록 : 법인에 준하는 단체로 인준
	11월	정책기획위원회 '새천년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11월 10일) '문화연대가 제안하는 21세기 문화정책' 자료집을 구상중 27일, 청년소위 '청소년과 청소년 보호법을 말한다' 포럼 문화개혁감시센터 하노버 엑스포/한일슈퍼 엑스포 관련자료집 진행, 2000년 예산감시 활동, 예산심의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워크샵 계획중 편집위원회 문화연대 문화신문 창간준비 2호 발행 시민자치문화센터 시민 주체적 문화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단법인화 추진 논의중 문화행동기획센터(3일)/도서관출판위원회(10일)/정책기획위원회(13일) 자체모임 *관련 내용은 3면으로...

▷▷ 문화연대 행사자료집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 주십시오. 우편이나 E-mail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화개혁감시센터는 지난 10월 국회국정감사에서 문화관광부와 상임위에 대한 의정활동을 펼쳐, 문화개혁을 위한 감시의 기능을 수행했다. 또한 ASEM(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민간단체 포럼과 밀레니엄 라운드 민중행동과 더불어 연대사업을 추진중이다.

사무처는 지난 10월 13일, 문화연대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절차에 따라 법인에 준하는 단체로 인준을 받았다.

청년소위 (시민문화자치센터) 지난 11월 27일 '청소년과 청소년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연세대에서 포럼을 개최했다.

문화행동 기획센터 지난 11월3일 자체모임

도서관출판위원회 11월10일 자체모임

정책기획위원회 11월13일 자체모임을 통하여 현안사항을 논의

각 위원회는 열려있습니다. 보다 많은 정보와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재경보고

기간 : 1999년 8월1일 - 1999년 11월30일

수입 : 32,080,894원

회비 31,673,200원 (착수금포함)

광고비 400,000원

은행이자 7,694원

지출 : 27,515,030원

사무실운영 1,457,800원

사무용품비 3,548,210원

(컴퓨터, 전화기 등의 사무집기구입)

인건비 7,950,000원

발송비 2,446,270원

인쇄홍보비 3,792,180원

행사비 7,638,53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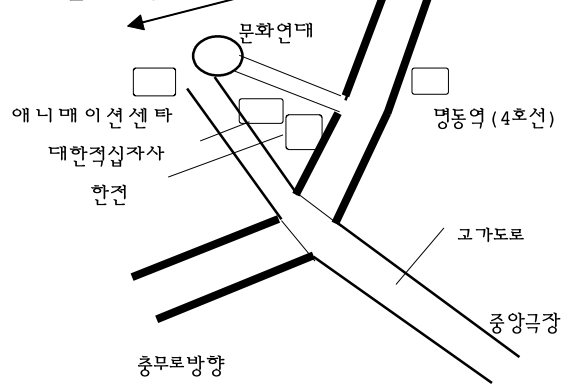
(창립대회 및 토론회, 심포지움 등)

정보이용료 554,740원

기타 127,300원

잔액 : 4,565,864원

사무실위치안내



지하철 4호선 명동역 1번 출구로 나와 서울예전방향으로 버스편은 361, 6, 57, 34-1 외 다수 (명동방향)

문화유산위원회

문화유산위원회(위원장:강찬석)는 지난 10월 27일 경복궁 내에 위치한 건청궁 지역의 개방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다.

경찰청장과 청와대 경호실장, 문화재청장 앞으로 발송된 질의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 ① 문화재 보호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사적지의 보존과 시민이 누려야할 문화적 권리를 위하여 건청궁은 개방되어야 한다.
- ② 현재 문화재청이 추진 중인 경복궁 복원 계획에서 문제의 지역에 대한 복원계획과 문화재청 당국의 의견과 입장은 어떠한가?

회원구성

회원현황	직업별분류	지역별분류
공동대표 - 9	교육직 - 165	서울 - 467
지도위원 - 113	연구원 - 5	경북 - 13
집행위원 - 195	회사원 - 24	전남 - 15
일반회원 - 509	전업작가 - 51	전북 - 21
	자영업 - 19	충남 - 10
	공무원 - 3	충북 - 11
	학생 - 57	강원 - 8
	주부 - 4	제주 - 8
	정계 - 2	경남 - 11
	언론 - 24	
	유관전문직 - 86	
	기타 - 70	
		광주 - 26
		대전 - 10
		충청 - 11

진행중입니다

시민자치문화센터(위원장:임정희)는 사단법인화를 추진하는 문제로 논의 중에 있다. 이와 같은 논의의 목적은 시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편집위원회(위원장:엄혁)는 이제까지 실험적으로 발행해왔던 기존 문화연대 신문을 새로운 제호로 바꾸고 본격적인 창간호로 제작 중이다.

문화개혁감시센터는 2000년의 문화관련 예산 감시활동과 더불어 예산심의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하여 워크샵을 계획중이다. 또한 하노버 엑스포/한일슈퍼 엑스포 관련자료집을 진행 중에 있다.

알아볼까요?

하노버 엑스포란 무엇일까요? 한일 슈퍼 엑스포는 어떤 것일까요?

① '하노버 엑스포 2000'은 "새천년의 인간과 기술, 자연의 조화를 통해 21세기 대비"를 슬로건으로 2000년 6월부터 10월까지 독일 하노버에서 열리는 새천년 최대 산업 박람회로 150개 국가에서 4천3백만명의 관람객이 예상되는 대규모 행사.

② **한일 슈퍼 엑스포**는 2000년부터 월드컵 축구대회가 열리는 2002년까지 3년간 해마다 한차례씩 10일간에 걸쳐, 열리는 한일 양국간의 대규모 산업문화관광박람회. '한-일 산업 문화교류제21'행사의 일환으로 매년10일간씩 열린 슈퍼 엑스포는 산업-기술관과 문화-예술관, 관광-물산관 등 3개 관으로 운영될 예정인데, 매년 2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것으로 산자부는 전망.